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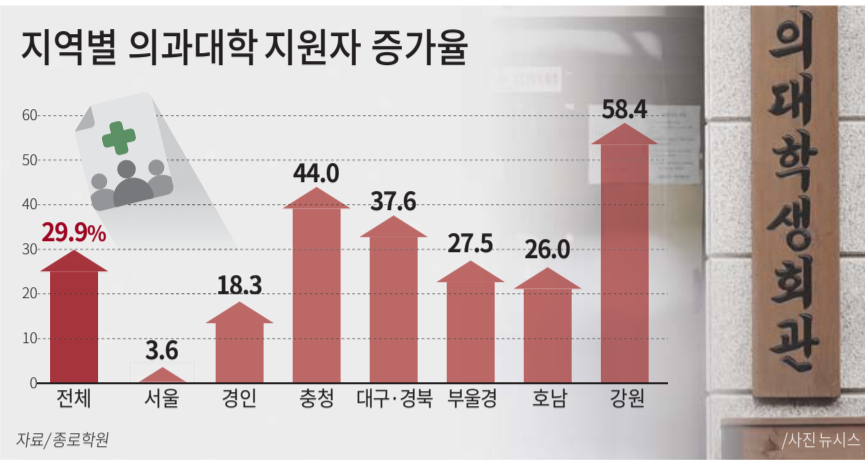
# 의대 정시 지원자 1만명 넘어 증원 영향에 경쟁률 소폭 하락

최상위권 학생 의대 쏠려... 30%↑  
학부전환 완료 이후 최대 규모  
SKY 이공계 지원자 줄어 합격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시모집 지원자가 전년보다 무려 30% 증가해 1만명을 넘어섰다. 의대 증원에 따라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의대로 쏠린 결과다. 이에 따라 이른바 'SKY 대학' 이공계학과 지원자가 줄어들면서 이공계 학과 합격선이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 3일 마감된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전국 39개 의대 지원자는 1만519명으로 전년 대비 29.9%(242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학년도 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서 학부 전환이 완료된 이후 최대 규모다. 전국 의대 정시에는 2020학년도 7867명이 지원한 데 이어 ▲2021학년도 7949명 ▲2022학년도 9233명 ▲2023학년도 8044명 ▲2024학년도 8098명이 지원했다.

올해 전국 39개 의대 평균 경쟁률은 6.58대 1로 전년(6.71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는 의대 정시 모집인원이 지



난해 1206명에서 올해 1599명으로 393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국 의대 중 최고 경쟁률을 보인 곳은 순천향대로, 26.19대 1을 기록했다. 이어 ▲고신대 25.77대 1 ▲동국대(WISE) 16.33대 1 ▲단국대(천안) 15.95대 1 ▲대구가톨릭대 14.60대 1 순이다.

권역별로 전년 대비 의대 지원자 수 증가상황은 ▲충청권 762명(전년대비 44.0%) ▲대구·경북 502명(37.6%) ▲부산·울산·경남 376명(27.5%) ▲강원권 349명(58.4%) ▲호남권 192명(26.0%) ▲경인권 130명(18.3%) ▲제주권 55명(50.0%) ▲서울권 55명

(3.6%) 등이다.

의대 정원이 확대된 지역을 중심으로 ▲충청권 7개 의대 9대 1(전년 9.77대 1) ▲대구·경북권 5개 의대 10.81대 1(전년 11.42대 1) ▲부산·울산·경남 6개 의대 7.2대 1(전년 8.14대 1) 등의 지역은 경쟁률이 낮아졌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SKY 대학'은 메디컬 부문을 제외한 자연계 지원자 수가 전년 대비 821명(8.8%) 감소했다. 올해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최상위권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의대로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현진 기자 hj@metroseoul.co.kr

# 경기도, 5년간 미래인재 5만5000명 키운다

김동연표 대학종합지원 청사진  
2029년까지 총 4960억 투입해  
반도체·AI빅데이터 등 인재 양성

경기도가 미래성장산업 인재 양성을 담은 김동연표 대학 종합지원 중장기 청사진을 내놨다.

경기도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아 4대 프로젝트, 16개 단위 과제로 구성된 '경기도 라이즈(RISE)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도는 오는 2029년까지 매년 약 992억원씩, 5년간 총 4960억원을 투입해 반도체·AI빅데이터·첨단모빌리티·바이오·신재생에너지·양자·디지털 전환 등 7대 미래성장산업(G7) 선도인재 6000명, 지역산업 실무인재 5000명 등 5년간 5만5000명을 집중 양성한다.

기업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기업 공동연구도 150건씩 5년간 750건을 수행할 계획이다.

대학을 혁신기술의 창업기지로 미

래성장산업(G7) 스타트업 20개사씩 100개 육성하고, 지역 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 200명씩 1000명과 재직자 400명씩 2000명을 교육해 지속적인 경력개발과 재직자 배움 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특히 경기북부 특화산업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남북부 균형발전을 꾀할 방침이다. 더불어 5년간 초광역 산학연 공동협력 프로그램 25건 발굴·운영해 비수도권 지역과의 산업격차를 해소하고 상생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경기도 RISE 협의체'를 구성해 수차례 자문·협의를 실시했다.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학과 시군, 교육청 등과 적극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정·보완했다.

도는 다음 달부터 라이즈 수행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에 들어가 5월까지 최종 선정을 완료하고 상반기 내에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최규춘 기자 ch9720@

# 일반학교에도 장애학생 위해 간호사 배치

서울교육청, 중도장애학생 의료지원  
의료적 지원 인공호흡기 관리까지 확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통합교육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상주 간호사를 배치하는 중도장애학생 의료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일반학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중도장애학생 의료지원 사업은 학교 내 중도장애학생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맞춤형 의료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의사는 학기당 1회 학교를 방문해 상담 등을 하고 상주간호사는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건강 상태 점검과 의료적 처치를 맡는다. 교육간호사는 학교와 병원을 순회하면서 상주간호사업무와 슬기 교육, 교직원 의료 교육, 학부모 컨설팅 지원 등을 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지

원 사업 운영 결과 교원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97.1%에 달했다.

올해 일반학교의 확대는 예산과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시범운영 형태로 추진된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최근 서울대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기관은 2025년 한 해 동안 3억 92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통해 학교 내 장애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의료적으로 지원하고, 교육 및 연수, 컨설팅 등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지체장애 특수학교 3교와 일반학교 1교를 포함한 4개 학교에 상주간호사를 배치하고, 의료적 지원 범위를 '인공호흡기 관리'까지 확대한다. 또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안전하게 교육과 놀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시기를 1월로 앞당기는 등 한층 더 강화된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 서울 소비경기 일부 개선... 내수 부진 여전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동향  
감소세였던 소비경기지수 '회복세'  
물가 상승, 취업자 수 증가폭 대폭 감소

서울의 소비 경기가 일부 개선되며 경기 하락세가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다만 대형 소매점의 판매 부진이 지속되는 중이고, 소비자 물가도 소폭 상승한데다 노동 시장까지 얼어붙어 내수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서울연구원의 '서울경제동향 2024년 12월호'에 따르면, 작년 8~9월 서울 시내 모든 권역에서 감소세였던 소비경기지수가 동년 10월 일부 회복세를 나타냈다. 도심권과 동남권은 증가세로 전환했고, 나머지 권역들은 소

비경기지수 하락폭이 축소됐다.

서울의 소비 경기는 미미하게나마 개선됐지만, 대형 소매점의 판매 부진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백화점 판매액 지수는 작년 8월 -1.8%, 9월 -1.6%, 10월 -1.8%로 석달 연속 마이너스였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 판매액 지수는 4.5%, -7.8%, -5.4%로 침체에 머물렀다.

농·축산물과 공업 제품 등 상품 물가가 뛰면서 서울의 소비자 물가도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6%로 전월(1.4%) 대비 0.2%포인트 올랐다.

작년 11월 서울의 상품 물가 상승률은 1.1%,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1.9%로 각각 전월 대비 0.5%포인트, 0.1%포인트 뛰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농·축산

물, 공업 제품, 집세, 개인 서비스 물가가 모두 전월보다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노동 시장은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감소하며 회복세가 둔화됐다. 작년 10월 취업자 수 증감은 2만 4000명으로 전월(6만 4000명)과 비교해 증가폭이 축소됐다. 임금 근로자 수 역시 전년 9월 7만명에서 동년 10월 3만 90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민간 신용 부문에서는 가계와 기업의 대출액이 증가했고, 연체율 상승세는 높은 수준에서 지속됐다. 지난해 9월 서울의 예금은행 가계 대출은 전월 371조원보다 2조 1000억원 늘어난 373조 1000억원을, 중소기업 대출은 전월 360조원과 비교해 1조원 상승한 361조원을 기록했다.

/김현정 기자 hjk1@

# 영동1교-청계산 구간 버스전용차로 설치

동남권 개발로 교통수요 증가 대응

강남대로부터 내국 지역을 잇는 중앙 버스 전용 차로 축이 완성돼 시민들의 출퇴근길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강남대로 중앙 버스 전용

차로의 끝부분인 영동1교에서 현릉로 청계산 입구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 중앙 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하고, 오는 11월 개통한다고 5일 밝혔다.

현릉로 중앙 버스 전용 차로는 서울 동남권(내곡, 세곡 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3년 7월 개통한 1구간(청계산 입구 교차로~내곡IC) 약 3.2km에 이어 올해 강남대로 영동1교까지 2구간이 뚫리면서 총 4.7km가 연결된다.

향후 3구간(내곡IC~북정역 교차로, 5.0km)까지 중앙 버스 전용 차로 설치가 완료되면, 동남권 대중교통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7 | 해질 / 17:29

1월 6일 (月)  
음력 : 12월 7일

수도권 날씨  
1 ~ 4°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4/16, 동두천 13/17, 가평 13/17, 파주 13/16, 서울 15/17, 양평 13/17, 인천 16/17, 수원 15/17, 용인 15/17, 평택 14/1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유해 4일 고향을 떠나 6일 간의 장례 시작 /사진 뉴시스  
▲중국, 10년만 공무원 월급 인상...경제 활성화 의도

▲일본제철의 미국 US스틸 인수 불발...日정부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  
▲이란 외무장관 "핵협상 준비돼있다"...트럼프에 대화 신호

▲젤렌스키 "쿠르스크 전투로, 이틀새 북한·러시아군 1개 대대 전멸"  
▲파키스탄 남서부 폭발물 테러로 4명 죽고 32명 부상